

# 차떼기 논란·맞고발...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과열'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둔 13일 오전 영광군 영광읍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조국혁신당 장현·진보당 이석하·무소속 오기원 영광군수 후보가 유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 영광서 사전투표 유권자 버스로 실어나르는 정황에 수사 착수 민주·조국혁신당, 곡성서 후보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놓고 공방전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신경전이 과열되는 모습이다. 영광에서는 투표 때 유권자를 버스로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일명 '차떼기' 논란이 불거지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곡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요구에 고발로 맞대응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영광의 군민이 지난 11일 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데려다주는 이른바 '차떼기' 정황을 신고했다. 영광경찰이 확보한 제보 영상에는 유권자 5명이 차방에서 내려 투표소에 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권자를 실어 나른 운전자를 확인하는 대로 이송 목적과 이번 선거 관계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목적으로 유권자를 이송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차떼기 논란'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캠프 측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혁신당은 "이번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 실어 나르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불법 선거운동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불법 행위를 제공한 정당과 후보자를 반드시 발본색원해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비판했다. 곡성에서도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 간 설전이 이어졌다. 혁신당 박용두 후보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조사 요청

(선거 공보 자료 이외의제)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등록한 재산은 총 41억639만원이었고, 이번 재선거 후보 등록에 신고한 재산은 10억원 줄어든 31억 7683만원이었다"며 "조 후보는 지난해 41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해 2022년 신고 재산에 합산하면 총 75억원 안팎이 돼야 하지만 신고 재산은 훨씬 적은 31억원이다. 조 후보 측의 답변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상래 후보 측은 "군에서 매입한 땅 또한 2022년 재산 등록했기 때문에 단순히 지난 선거 때 재산 등록한 금액과 매각 보상 금액을 더해 후보자의 재산을 75억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린 것"이라며 "박 후보 측이 오로지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고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후보는 박 후보 측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제기 등에 대해 자녀 재산 신고 고지 거부, 부모 부동산 일부만 상속 등을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김해나·장혜원 기자 khn@kwangju.co.kr

##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라고 답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이 국민이 납득

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해당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선 "오해하고 있다"며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착각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상세 내용을 보고받고 이래라저래라해야 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시기 등에 대해선 "더 드릴 말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오광록 기자 kroh@

## "국민 안전 위해 가하면 그날 북한 정권 종말"

### 국방부, 北 김여정 담화에 경고... "오물 쓰레기 풍선 중단하라"

국방부는 "대한민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위험 수위를 높인 북한을 향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 메시지에서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여정은 담화에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정작 북한은 지금까지 이미 10여 회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등을 포함한 횡횡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방부는 "북한은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 쓰레기 풍선을 살포해 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소위 '평양 무인기 폐라(전단)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 평양 상공이 떨어진 것을 두고 '끔찍한 참변', '공격태세'를 운운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노동신문에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며 '인민들의 보복 열기' 등을 언급한 것은 김정은 일가의 거저 독재 정권에 지지되는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이라도 이해해 보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재명 "당정, 총선 심판 이유 모르면 2차 심판해야"

### 부산서 지원 유세... "지방정부·교육청 살림 파탄" 정부 정책 전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 내고, 서민에게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한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 퇴직의 피바람이 불어 닥친다"며 "우리 민생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조부자감세로 나라 곳곳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을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 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 금정체육공원 앞에서 열린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금정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투표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압도적 의사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권을 심판했는데도 (정권은) '별것 아니네' 하지 않나"라며 "이번 선거는 금정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에 관한 선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권력이란 만바다를 향해하는 배와 같다. 선장이 슬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라면서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너 나랑 잘 알지 항해사 해봐' 그러면 항해가 되겠다"라고 반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문금주 "수협 정책자금, 영세어업인 금융 소외 우려"

수협의 양식어업 경영자금, 재해복구자금 등 11개 정책자금 대출지원이 2026년 기금 잔액 소진으로 영세어업인의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3일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출한 '대손보전 기금 출연 및 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액 기준 회수가 불가능한 대손보전금은 2019년 12억원에서 2023년 26억원, 올해 8월 기준 4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기금이 충분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대손보전 대기금이 2019년 4000만원에서 6년 사이 100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은 올해 대손보전 대기금으로 역대 최고인 46억원을 전량하고 있다. 이는 23년 이월채권 8억9000

만원과 24년 신규신청 61억 2000만원에서 수협이 올해 계획한 대우변제 이행금액 24억원을 뺀 전량이다. 문제는 대손보전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우변제 이행을 위해서는 대손보전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기금 잔액이 2019년 1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87억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문 의원은 "제도 취지에 맞게 충분한 출연금 확보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영세어업인 등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풍수·사주

##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역,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투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태월 등)
- 역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양해인(660326-2XXXXXX)  
· 최후주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평덕로 180, 300동 301호(안원리, 화순부영아파트)

피상속인 망 양해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년단4390호로 신청하여 2024년 10월 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 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0월 14일

· 상속인: 위신(560420-1XXXXXX)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48번길 29, 301호(안양동)

· 신고기간: 2024. 10. 14. ~ 2024. 12. 24.  
· 채권신고처: 상속인 위신의 주소

---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나정석(341210-1XXXXXX)  
· 최후주소: 광주 북구 사강로 155, 308동 1801호 (송월동, 미라보3차아파트)

피상속인 망 나정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년단931호로 신청하여 2024년 9월 3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0월 14일

· 상속인: 나진호(640105-1XXXXXX) 나주시 나주로 54, 다동 103호 (송월동, 엘리화사원아파트)

· 신고기간: 2024. 10. 14. ~ 2024. 12. 24.  
· 채권신고처: 상속인 나진호의 주소

---

###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 빌딩, 바닥 628㎡ 대형건물  
대로, 롯데마트 앞

약국 하루 처방전 400건, 6개월 후 10년 임대료, 유동인구 많은 빌딩 / 투자기회 최고  
약국, 내과(외과 3명), 소아과, 통증과 외 기타  
월 3천 4백 (수익률 6.13%)

**매매가 78억 은행 42억5천 / 보유 4천 포럼 인수가 26억 1천**

**010-3646-8700**

### 先州日報

72년을 밝힌 호남인민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동 광 266-1960
- 동 광 525-3761
- 신 양 222-6171
- 양 신 571-7658
- 오 신 266-7801
- 용 북 433-1503
- 동 신 433-1503

**동 구**

- 동 광 673-6836
- 동 광 222-9054
- 동 부 225-6001
- 동 양 222-9054
- 동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남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부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월 376-6511
- 풍 양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안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